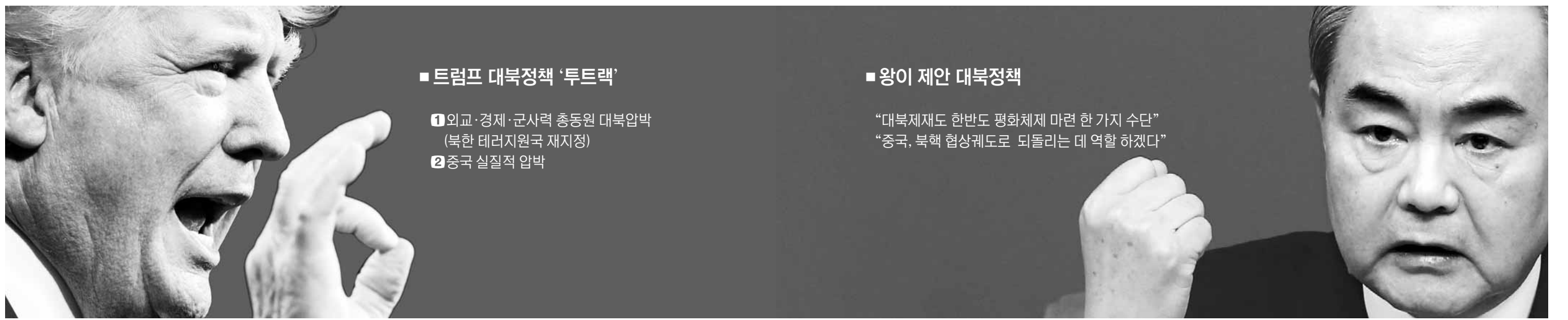


‘사드 기습 배치’...등돌린 美·中 대북정책



■ 트럼프 대북정책 ‘투트랙’

- 1 외교·경제·군사력 총동원 대북압박 (북한 테러지원금 재지정)
- 2 중국 실질적 압박

■ 왕이 제안 대북정책

“대북제재도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한 가지 수단”
“중국, 북핵 협상개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 하겠다”

대북 압박, 사드는 시작에 불과

트럼프, 초강경 북핵 대응 속도
공화당도 백악관 힘 실어주기
NYT “美, 한국 핵무장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보에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이라도 하려는 듯 북한이 ‘피보 기식’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데다가 ‘김정은 VX 암살’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신중하고 단호한 대북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북한이 트럼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5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주일미군기지 타격용 훈련’이라고 공식으로 밝힘에 따라 미국 내 대북강경론은 더욱 비등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지만 주일 미군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공언한 만큼 미군의 안전이 언제든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두 번째 도발 다음 날인 6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개시하며 ‘사드 굳히기’에 들어간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사드 배치 개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북핵 불타협’의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힘을 통한 평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조를 조만간 나올 대북정책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공화당이 약한 미 의회의 기류는 한층 더 강경하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도 부급 인사들이 연일 트럼프 정부에 선제 타격을 포함한 초강경 대북대처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내각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국방-재무부 3대 부처 가운데 틸러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외교·경제·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한·미, 전쟁할 작정인가”

왕이 중 외교부장 기자회견
“사드로 한국 더 위험해져”
한중일 정상회담 “먼 얘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한·중 수교 25주년 성과는 매우 소중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열린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한 가운데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는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며 “그동안 양국 국민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국면을 지켜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에 대해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고 사드 배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협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거듭 해명을 위해서 북한과 한·미 양측이 서로를 향해 치닫는 형국에서 벗어나 모두 멈춰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긴장관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계속하

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양측은 서로를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정말 충돌할 준비를 마쳤느냐”고 반문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책에 대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측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대북제재도 결의 이행의 한 가지 수단이고, 협상을 촉진하는 것도 결의를 이행하는 수단”이라며 “중국이 북핵문제를 협상개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3국이 서로 협력하는 데 방해가 될 여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튜브 나온 김한솔 “내 아버지 피살됐다”

북한 특수요원들에 의해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22)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김한솔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8일 게시된 ‘KHS Video’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면서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북한 공무러행용(외교관용) 여권

을 보여주지만, 신상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퍼드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돼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정보당국은 해당 인물이 김한솔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영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게시자는 ‘전리마 민방위’이며, 영상 뒷부분에도 이 단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로고가 보여 이 단체에서 김한솔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리마 민방위’는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



김한솔 등장 유튜브 캡처.

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다”면서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지난달 13일 피살된 뒤 마카오에서 생활해 온 김한솔을 비롯한 그의 가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왔다. /연합뉴스

“CIA, 삼성·구글·애플 제품 해킹”

위키리크스, 문서 수천 건 공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7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이버 정보센터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이 문서들에는 CIA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구글·애플·삼성·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의 제품과 플랫폼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도·감청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CIA는 물론 문

서에 언급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우려와 반발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가 이날 공개한 CIA 사이버 정보센터 문서에 따르면 CIA는 구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MS의 컴퓨터 운영체제, 삼성의 스마트 TV 등을 원거리 조정을 통해 도·감청 도구로 활용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는 2014년 CIA가 영국 MI5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TV 악성코드 ‘우는 천사(Weeping Angel)’에 의해 해킹됐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 악성코드는 TV에서 정상적인 TV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하면서도 백그라운드에서 음성만 포착한다. 또 TV에 저장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WIFI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CIA는 또 ‘위장 전원 꺼짐’ 기술도 활용해 TV가 꺼져있을 때도 주변의 소리를 도청하고 녹음했다고 포브스는 보도했다.

CIA는 또 텔레그램과 시그널,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도 해킹했으며, 안드로이드 전화의 암호화 이전 음성 파일과 데이터 파일도 수집했으며, 컴퓨터 시스템이 내장된 자동차를 해킹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내용은 들어 있다. /연합뉴스

싸고, 투자, 가치있는 물건, 사정상 매매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펜션부지	나주, 다도면 임야	광양시, 근린상가	나주, 남평읍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 1260 - 2 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평당 3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